



##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져요

옥복연/성교육전문가

저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남녀 공학이어서 남녀가 한 반에서 수업을 합니다. 저는 반에서 공부도 꽤 잘하는 편이고, 성격이 활발해서 남자들과도 잘 어울리며,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인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는 남자애들과 잘 어울려 노는데, 몇몇 남자애들 때문에 고민이에요. 남자애들 중 몇 명이 저보고 “나랑 키스한번 해 보자”고 말하기도 하고, 풍선을 조그맣게 불어 가슴에 넣고는 OO가슴”이라고 놀리기도 합니다.

또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모든 척 지나가기도 하는데, 화를 내면 여자라서 속이 좁다고 도리어 남자애들이 화를 내요.

이제는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다가 한번씩 짜증나고, 모든 남자가 싫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갈**은 반 남자 친구들의 짓궂은 행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인 여학생이군요.

— 학창 시절은 참으로 소중한 추억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오래도록 남아 있으며, 같은 반 남자 친구들과도 동성친구 못지 않게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면 남녀의 신체가 급격히 발달하고, 또래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이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최근 우리 사회는 각종

음란물들이 범람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충동이 늘어나고, 이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여러 가지 성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OO님은 “성폭력”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지요?

성폭력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성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강제적인 성행동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언어적인 괴롭힘도 포함이 됩니다.

아무리 같은 반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이성간에는 서로가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면 그만해야 하는데, 가슴을 만진다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당하는 사람의 기분을 이해하기는커녕 속이 좁다느니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자신도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불행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요.

지금 OO님의 몸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함부로 몸을 만지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큰 소리로 “안돼”라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한 행동이 고쳐지지 않을 때에는 남학생들이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습관화되므로, 여학생들이 힘을 모으거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현명하고 활발한 OO님이 “성폭력 없는 교실”을 만드는데 앞장서는 것이 어떨까요?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보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여성으로서 주체 의식을 가지고, 용기와 지혜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21세기의 여성으로 당당하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